

보도시점

2024. 5. 2.(목) 17:00

배포 2023. 5. 2.(목) 09:00

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 송미령 장관, 제주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
- 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산지 규모화 중요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하우스 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 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도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211)
		담당자	사무관	정성수 (044-201-2223)

